

공동학술대회 25주년

특별심포지엄

2018년 5월 25일

숭실대학교 최수정

토론의제

- 공동학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

- Costs versus Benefits: 학회참여의 Benefits이 없다.
 - 위치: 개최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짐
 - 학교별 정책: 학회 참여가 재임용/ 승진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
 - 한국 대학들의 경우, 젊은 교수들은 학교 내 수업과 행정일이 매우 많은편; 미국대학들의 경우, 수업은 1년에 1-2개 배정; 행정일은 거의 없음.
- 즉, 미국같은 경우, 2-3년에 걸쳐 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.
반면 한국은 극단적으로 3개월에 논문 1개를 완성해야 하는 시스템
- ⇒ 양 위주의 업적평가 시스템 하에서 논문 1-2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하에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디스커션을 통해 논문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베니핏이 크지 않음.

- 대다수의 국내 대학들의 경우, 해외 저널 (SSCI, SCOPUS)에 대해 높은 승진점수를 부여
 - 국내 논문들의 경우, 대다수의 학교에서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정도로 정량평가; 즉, 연구자 입장에서 긴 심사기간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국내저널은 기피하게 됨. (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물이 차이 없음); 학회에 참여해야 할 인센티브가 더더욱 없어짐.
- 학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?
 - 초기에 학회 참여는 연구자들이 교류하면서 여유롭게 쉬거나 본인의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즐거운 일이었을 것임.
 - 2018년 현재, 각 대학에서는 조교수들에게 높은 업적 점수와 행정업무를 요구; 더 이상 학회에 참여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 짐. (학회 참여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음)
 - 인터넷으로 모든 논문들을 버전별로 찾아보는 것이 가능.

대안 및 결론

- 학회 참여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
 - 학회 참여시 논문 게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
 - 학회 개최장소를 천안이 아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김.
 - 개별학술대회와 공동학술대회의 점진적 통합
 - **젊은 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 튜토리얼이나 강의 튜토리얼 실시**
- 그러나, 전체 교수 사회에서 젊은 교수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, 개별학교의 업적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,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.
(사회/구조적 문제)